

도서관 역사 속의 책 도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ook Theft in the Library History

노문자(Moon-ja Ro)*

목 차

- | | |
|---------------------------|---------------------|
| 1. 서론 | 3. 직업군에 따른 책 도둑의 역사 |
| 2. 책 도둑 행위의 개념과 분류 | 3. 1 공권력에 의한 책 약탈 |
| 2. 1 책 도둑 행위의 개념 | 3. 2 사서로서의 책 도둑 |
| 2. 2 책 도둑의 분류 | 3. 3 성직자로서의 책 도둑 |
| 2. 2. 1 애서가(Bibliophile) | 3. 4 학자로서의 책 도둑 |
| 2. 2. 2 장서광(Bibliomania) | 3. 5 일반인으로서의 책 도둑 |
| 2. 2. 3 Bibliocleptomania | 4. 결론 |

초 록

책의 분실은 자연 재해에서도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흔히 말하는 인재, 즉 인간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다. 책을 사랑하는 것과 책을 훔치는 것 자체를 동일시하기도 하고 또 책을 훔치는 것을 인간의 원죄라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훔치는 행위는 책의 사랑에서 기인하든, 사랑의 한계를 넘어 강렬한 소유욕에서 기인하든, 아니면 병적인 요소에 기인하든 또는 전쟁을 통한 공권력에 기인하든 불법행위임에는 틀림없다. 책 도둑의 개념을 정리하고 직업군 별로 유명한 역사적인 책 도둑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나치시대의 공권력을 동원한 책의 약탈, 사서인 Libri의 사례, Blumberg가 책을 훔친 규모와 방법들을 도서관 역사의 한 부분으로 다루었다.

ABSTRACT

The loss of book happens not only from natural disaster but from mostly humans' improper intention to acquire without proper consideration of ethnic standards. We occasionally have difficulty in differentiating between stealing and loving books since it is often called the basic instinct to possess the books. It is however absolutely illegal to take books belong to others without permission due to one's pure love towards books, passion to possession, or innate instinct. In this study, we define the definition of book theft and classify the cases of historically well-known book theft. It then states the book plunder cases of Nazi with the abuse of public powers, Libri, and Blumberg in terms of quantity and methods as a history of library.

키워드: 도서분실, 도서약탈, 애서가, 장서광, 나치시대, 리브리, 블룸버그

Book theft, Book plunder, Bibliophile, Bibliomania, Bibliocleptomanie, Libri, Blumberg, Nazi Period

* 송의여자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lomj@sewc.ac.kr)
논문접수일자 2005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12월 10일

1. 서론

개인이 단순히 책을 좋아하여 정도를 벗어나 흠치는 행위에서부터 국가의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책을 파괴·훼손하고 약탈하는 행위는 책의 역사와 함께 그 유례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에서 책의 도난과 파괴는 파피루스 때부터 시작하여 양피지·종이시대에 만연하여 현재의 종이·디지털 시대에까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도서관에서 책을 흠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성취욕에 대한 압박감, 다른 학생들 간의 경쟁심, 복사비가 너무 비싸거나 책을 구입할 수 없는 경제적인 이유,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계속해서 대출되었을 때의 좌절감 등등 그 이유는 다양하다. 성적이 좋은 집단일수록 성적이 낮은 집단보다 책을 흠쳐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 도서관 장서를 백화점처럼 배치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자료에 쉽게 접하게 하여 대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도서관이 있는 이용자를 유혹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에 따른 책 도절 방법은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방법도 더 지능화 될 것이다.

중세시대 도서관이 쇠시슬에 책을 뽕뽕 묶어 놓고 도서의 안전을 바래왔던 시대에서 지금은 전자 도난방지 시스템으로 책의 분실은 막고 있다.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에서는 물리적인 책의 도난도 도난이지만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정보를 다루는 모든 시설들에 접근하는 컴퓨터 해커, 파괴성 이용자, 컴퓨터 광들은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고, 원격으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불법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도

서관을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 도서관들은 책이 분실되는 단순한 도절에서부터 이러한 잠재적 위협과 포괄적 위협에 대비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책의 분실과 관련된 개념들을 살펴보고, 책을 흠치고 약탈하는 행위를 도서관 역사의 측면에서 국가의 공권력을 통한 약탈, 사서, 성직자, 학자로 한 직업군별로, 또 일반인으로 분류하여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례를 살펴 보았다. 특히 최근 밝혀지고 있는 히틀러 시대의 조직적인 도서 약탈과 Libri, Blumberg의 사례는 지울 수 없는 도서관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다. 학생들의 책 도절은 현실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제외되었다.

도서관 역사의 한 분야로서의 책 도둑 사례들은 문헌을 통해 고찰하였고, 책을 흠치는 행위, 책의 도절, 도난, 약탈이란 용어는 문맥에 따라 같은 의미로 혼용하였다.

2. 책 도둑 행위의 개념과 분류

2.1 책 도둑 행위의 개념

책 도둑은 말 그대로 책을 개인이든 기관인 도서관이든 관리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가져와 도서관 자료에 분실과 훼손을 가져다주는 것을 뜻한다. 자료의 분실은 자료의 불법유출, 불법대출, 자료를 의도적으로 감추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의 훼손은 책의 일 부분을 절취하는 것, 책에 밑줄을 치는 것, 책에 색연필로 표시하는 것, 책을 접는 것, 음식물로 얼룩지게 하는 것, 습관적인 낙서 등 주인의식의 결여에서 생긴 결과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자료를 온전

하게 보전하지 못하는 것들도 포함한다(홍순영 1993). 전자도서관 또는 디지털도서관시대에는 자료를 도서관 자료의 분실이나 훼손은 단순히 자료를 불법으로 가져오거나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 대학이나 연구소, 국방기관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침입하는 파괴적인 행위, 즉 도서관 시설의 장비를 부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바꾸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침입하고,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일부러 방해하는 행위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Rude 1993). Roberts(1968)는 책의 분실을 0%를 목적으로 한다면 도서관은 문을 닫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책 도난, 훼손의 문제는 아마도 책의 역사와 그 유례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책의 도난의 첫 기록은 페르샤인이 람세스 2세 도서관에서 파괴루스를 무단으로 가져간 때부터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때부터 책 도둑은 사서들을 괴롭혀 왔다고 볼 수 있다.

동서를 가리지 않고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들 한다. 책 도둑은 훔친 책을 팔지 않는 한 책 도둑이 아니라는 인식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통해져 왔다. 중국인들은 “책을 훔치는 것은 아름다운 범죄”라고도 하고(Hamilton 2000), 또 인간의 원죄 중의 하나라고도 한다.

책을 훔치는 행위는 르네상스 시대에도 만연했고 지금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1752년 교황 베네딕트 14세는 책도둑을 파문할 수 있다는 교서를 선포하기도 했다. 책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르네상스 시대 어느 귀족의 책에 새겨진 충고 또는 저주는 깜찍스러운 협박으로 보기에 매우 살벌하기까지 하다(망구엘 2000).

“당신의 머리 위에 내 주인의 이름이 보고 있노라. 그러니 나를 훔쳐 가지 않도록 조심하게나. 만약 나를 훔쳐 가면, 가차 없이 그대의 목이, 나를 대신하여 빛을 갠아야 하리니. 아래를 보게나, 보이지 않은가. 교수대의 그림이. 그러니 일찌감치 조심하게나. 교수대에 매달려 끌려 올라가지 않도록.”

또 바르셀로나에 있는 산페드로 수도원의 도서관에 적혀있는 또 다른 위협은 “책을 훔치거나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손안에 든 책이 뱀이 되게 하여 그 사람을 갈기갈기 찢게 하여라. 그 사람 전신을 마비시키고 육신을 시들게 하여라. 자비를 구하여 큰 소리로 울부짖게 하고, 절대로 죽지 않는 버러지라는 증거로 책벌레들로 하여 그의 내장을 갠아먹도록 하라. 마침내 그가 마지막 처벌 장으로 향하면 지옥의 불길이 그를 영원히 삼키게 되라.”

이러한 저주와 협박도 책을 사랑하는 광기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책을 훔치는 행위의 과정을 단순히 책을 사랑하는 애호가 의 입장에서부터 병적인 도벽에 이르기까지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2. 1 애서가(Bibliophile)

비블리오피레(Bibliophile)인 애서가는 도서를 좋아하여 수집하거나 소장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문헌정보학용어사전 1996). 애서가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분명 책 도둑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책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책 도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여기에 포함시켰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대 때부터 있어 왔다. 로마제국 시대의 시세로(Cicero)는 열정적인 애서가였다. 중세에

는 주로 성직자들과 세속 제후들이 고가의 고서를 수집하였다. 세계적으로 또 잘 알려진 애서가인 리처드 버리 주교(Richard de Burry 1287-1345)(이광주 2001)는 페트라카와도 친교가 두터웠으며, 한때 교사와 국가 공무원이었으며, 후에 더럼(Durham)의 주교가 되었다. 그는 일찍부터 진정한 도서 수집가였으며, 훗날 영국 에드워드 3세의 외교사절로 유럽 여러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수많은 도서관, 사본실, 도서중개상의 방문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거의 모든 형태와 주제에 관한 책들을 수집했으며, 주교가 된 후에는 많은 도서를 기증을 통해 수집했다. “책은 태어날 때부터 성숙하다”는 세계 최초의 서적 예찬서인 필로비블론(Philobiblon)을 그는 1344년 책이 아직 보급되기 이전에 완성하였지만 1473년에야 간행되었다. 이 책은 도서의 찬양서였지만 내용은 그가 어떻게 도서를 수집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그 시대 도서의 세계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Philobiblon 이 출간되던 때 유럽에서는 개인이 교양을 위해 책을 소유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귀족은 약 20권, 대학교수는 40권, 상인들은 2-5권 정도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리처드 버리 주교는 그 당시 약 1500권을 소장한 대단한 장서가였다.

15-16세기 르네상스 시대, 휴머니즘 시대에는 학자들과 일반 시민들도 애서가의 대열에 합류했다. 애서가들이 즐겨 수집하는 고가의 책들은 주로 골동품점이나 고서점, 경매에서 취득했다. 책이 보석처럼 비싸고 귀했던 시대에 애서가나 장서가는 왕후 귀족일 수밖에 없었다. 학예 애호가 또는 후원자로서 페트론의 존재는 라틴어 어원 Patronus 어원에서 시작되며, 메세나는 문예의 보호자로 알려진 로마의

귀족 Mecenat에서 유래 됐다. 페트론 중심의 학예 서클이나 살롱도 로마시대부터 이미 존재했다. 그러나 페트론 또는 메세나의 역사에 있어 가장 명성 높은 가문은 로렌초(Lorenzo de Medici 1449-1492)를 중심으로 한 유럽 최대의 금융자본가인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다(Harris 1983). 장서가 열전(列傳)의 첫 번째 인물인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첫 문예 후원자인 코시모 메디치(Cocimo de Medici 1389-1460)가의 후원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빛나는 예술과 학문도 후세의 명성을 잊지 못했을 것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알프스산맥을 넘어 유럽 여러 나라 궁정사회나 상류계층에 예술과 문학을 뿌리내리게 했다. 메디치 가문은 도서를 수집하기 위하여 스파시아노 다 비스티치(Vespasiano da Bisticcio)를 고용했는데, 그는 45명의 필사생을 고용해서 22개월 간 약 200권의 책을 만들었다. 이 책들은 메디치 도서관의 장서가 되었다. 심지어 교황 니콜라스 5세(Nicolas V)가 된 토마스 파렌투첼리(Tomaso Parentuceli)는 한때 코시모 메디치의 사서로까지 근무 할 정도였다. 산마르코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코시모는 교황 니콜라스 5세의 바타칸 도서관을 모델로 삼았다. 그러나 도서관 건립에 정신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인문주의자인 친구며 동시에 그의 채무자였던 니콜로 니콜리(Nicolo Nicoli)였다(베틀스 2004). 코시모는 그의 유언장에 산마르코 도서관은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관리자의 역할을 겸한 이사진의 감독아래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명기했다. 메디치가는 도서관 건물을 기부한 것 이외에 소장할 책도 직접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전문가이자 후원자,

지식인, 군주로서 공적인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산마르코 도서관은 도서관을 이용했던 학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최초의 공공도서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시모가 사망한 후 대부분의 그의 장서는 그의 가족도서관의 소장으로 되었으며, 이 장서들은 그의 증손자인 로렌초가 크게 만들었다. 로렌초는 왕자, 시인, 예술의 후견인이었으며, 그는 학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다른 수집자들이 그의 진귀한 도서를 복사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베틀스 2004).

역사적으로 문예부흥의 원동력으로 잘 알려진 메디치가에 대해 역사가 리자 자딘(Lisa Jardín)은 이 가문을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녀는 메디치가의 잔인한 평판을 도서관의 건립을 통하여 상쇄했다고 전하고 있다. 도서관의 설립은 메디치가가 공적으로 권력을 굳히는데 기여했고, 또 상인에서 명실상부한 군주의 위치로 오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도서관의 소장품과 관련해 그녀는 “그들은 희귀본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시민을 위한 자선행위로 위장함으로써 화려한 번신을 꾀했다”고 지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하고 있던 책들을 도서관에 기증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에서의 공적 영역을 육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를 했다(베틀스 2004).

우리가 흔히 18세기의 난봉꾼으로만 알고있는 자코모 지롤라모 카사노바(1725-1798)가 애서가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는 카톨릭교회의 하위 성품을 받았고, 여러 가지 직종, 즉 바이올린 연주자, 군인, 프리메이슨 비밀결사회원, 외교관, 연극 연출가, 배우,

댄서, 프로이센 관료, 비단 제조업자, 사기꾼, 스파이 등에 종사도 했지만 그는 그가 존중한 여성을 사랑했듯이 책도 매우 사랑한 사람이다. 그는 여성과 함께 있으면서도 항상 글을 썼고, 40여권을 출판하기도 했다. 카사노바는 그의 가슴을 채워줄 그 무엇, 그를 웃음 짓게 하는 그 무엇이 여자가 아니라 책이라고 할 정도로 책을 열렬히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해밀턴 2005)

유럽의 왕후 귀족에게 책은 권위와 상징이었다. 그러나 유럽의 왕후 귀족 중에서 나폴레옹 이야말로 참다운 독서가이며 애서가였으며 지적인 리더였다(이광주 2001). 그는 말안장 위에서도 책을 읽었고, 그가 러시아 원정길에서 애독한 짧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저자 괴테를 만난 일화는 유명하다. 또 나폴레옹의 사서는 진군하는 군영(軍營)에도 항상 신간 서적을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일화 역시 유명하다. 대단한 속독가였던 나폴레옹은 항상 시간만 나면 책과 함께였다. 1812년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 머물면서 사서인 바르비에에게 재미있는 신간을 보내달라는 독촉을 여러 번이나 했다. 그러나 신간이 도착하기 전에 나폴레옹은 패장으로서 폭설을 뚫고 후퇴해야만 했다.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에서 그의 재산목록에는 8천권의 장서가 기재되었었다.

문헌정보학계에서 도서관 사상가의 시조로 알려진 가브리엘 노데(Gabriel Naude)를 마자랭 추기경이 Gardinal Mazarin 도서관의 도서수집을 위해 도서 사냥꾼의 역할로 고용됐다는 사실은 약간의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노데는 추기경의 도서수집을 위해 도서의 수집 방법, 즉 처분되는 장서를 일괄구매하고 또 고물

상이나 휴지상에 부지런히 드나들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이광주 2001).

우리 전통 사회에서도 서치(書癡), 서음(書淫), 서벽(書癖), 서재인(書齋人)이라는 멋스러운 표현들은 우리의 장서가와 애서가를 표현한다. 영조때 영의정을 지낸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던 남공철(南公轍)은 서화 벽(癖)이 있어 명품을 보면 옷을 벗어서라도 구입해야 했고, 또 남의 집에 좋은 책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감상하였다. 그는 그 벽이 지나쳐서 왕으로부터 견책을 당하기까지 한 애서가였다. 그는 그의 저택에 고동각(古董閣)과 서화제(書畫齋)를 따로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시호(諡號)는 문헌(文獻)이었다. 또 동시대 문장가 이덕무(李德懋)는 1761년 看書痴傳(책만 보는 바보)라는 짧은 자서전을 썼다. 그는 독특한 창의성 있는 문장가였으나 서출이었기 때문에 벼슬은 규장각 검서관(檢書官)과 적성(積誠) 현감에 지나지 못했다. 그는 하루도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었다. 등잔기름이 없어서 온종일 햇빛을 따라 동쪽, 남쪽, 서쪽으로 상을 옮겨가며 책을 읽었다. 그 당시의 학자는 “이덕무의 눈을 거치지 않고서야, 어찌 책이 책 구실을 하겠느냐”며 귀한 책을 있을 때는 이덕무에게 먼저 보내기도 했다(안소영 2005).

좋아하는 것에 목숨을 건 미친 바보들 중에는 책에 미친 애서광도 있었다. 참관을 지낸 이의준(李義駿 1783-1798)은 옥해(玉海)란 책에 벽(癖)이 있었다. 옥해는 송나라 때 왕응린(王應麟)이 펴낸 200권에 달하는 총서다. 21문(門) 240여 항목에 걸쳐 천문지리에서 길상선사(吉祥善事)에 이르기까지 온갖 내용을 모은 책이다. 그는 평생 이 책만 아껴 단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도 변소를 갈 때도 반드시 책만은 지니고 갔다. 밖에 나들이를 갈 때도 그랬다. 젊어서도 그랬고 늙어서도 그랬다. 그가 말년에 황해도 관찰사로 나가 있을 때 관야에 밤에 불이 났다. 잠이 덜 깬 채 뛰쳐나온 그는 뒤늦게 옥해 전질을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내 옥해! 내 옥해!” 하며 큰소리로 외치면서 주위의 만류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갔다가 질식해서 죽었다(정민 2005).

중국 명나라 때의 어느 학자는 송나라 시대의 後漢記를 탐내어 그가 총애하던 미녀와 교환하기까지 하였다. 이렇듯 동양유교사회의 장서가는 선비다운 온화한 이야기들로 유럽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장서광과는 다르게 전해오고 있다.

2. 2. 2 장서광(Bibliomania)

장서광 또는 서적수집광인 비블리오마니아는 서적을 보는대로 수집하거나 무작정 수집하려는 사람으로 정의되었다(문헌정보학용어사전 1996). 책을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사랑하는 애서가의 명정(醜態)이란 고희의 여인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것과 다름없는 정신병리학의 대상이요 “아름다운 악덕”이라지만 장서광이란 분명 죽음에 이르도록 치유되지 않는 광기일까? 그렇다면 장서광은 책의 벗인가 아니면 적인가(이광주 127). William Blades는 서적 수집의 지나친 기우에 휩싸인 소장자, 즉 장서광을 ‘책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블레이드 2005).

장서광 또는 애서광의 광은 마니아(manía)라는 광기의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다. 엔테우

스(entheos), 즉 신적 영감을 받는, 또는 엔테우시아스모스(entheusiasmos) 즉 신적 영감이 라는 단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플라톤 철학의 주요 개념으로서 병자의 광기와는 다른 신으로부터 부여된 신적 광기를 말한다. 마니아는 죽어야 할 존재인 인간에서 일상성, 시간성의 멍에를 끊고 영원한 것, 유한적인 것, 즉 가치, 이데아(idea)와 만나는 초월적인 힘을 의미한다. 장서광의 이러한 의미로 인해 영국에서는 19세기에 애서가(bibliophile)와 장서광(bibliomania)을 같은 개념으로 통하였지만 불란서에서 장서광은 고가, 희귀 도서를 무작정 보는 대로 수집하는 의미로 통했다. 애서가와 장서광의 구별은 책을 지배하는 자와 책의 지배를 받는 자에서 찾지만 이 양자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독일에서 1900년경 장서광은 도서의 외적 요소, 즉 희귀성, 제본, 보존의 성격에 따라 도서를 열정적으로 수집하는 사람이며, 이들은 주로 이러한 수집물을 읽거나 이용하는 것보다 소유하는데 집중하였다(Kolasa 1988). 이러한 허영심이 많은 수집광들은 읽기 위해서라기보다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들은 주로 학자 층으로 고상한 미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들의 재산을 도서 수집을 위해 바친 허풍쟁이이고 또한 자만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다. 시샘이 많은 장서광은 항상 새로운 고가의 도서를 찾아다니는 사람을 말하며, 이를 위해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의 소유욕을 만족시킨다. 그들은 꾸준히 해당 주제의 작품을 쫓는데, 이기주의, 질투, 허영심, 자아현시증은 비블리오마니아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집의 방법과 대상은 수집광의 인격에 따라 결정되며, 이것은 또한 수

집광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20세기 초에 나타난 이러한 개념을 비블리오펠레인 애서가는 지배자인 책의 주인이요, 장서광은 도서의 노예로 정리했다(Bogeng 1935). 장서광은 또한 애서가의 이면(裏面)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성과 도덕의 선을 넘어서 병적인 변형으로 통용되고 있다. 비블리오마니아는 명성 높은 책들에 대한 사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인간이면 누구나 자연스러운 수집욕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의지박약, 불안정한 괴팍함, 환상, 열정을 제어할 지적 능력의 부재로 인해 순수한 애서가의 선을 넘어 범죄적인 비블리오마니아가 되어버린다.

도서 소유욕에 대한 병적인 변형인 비블리오마니아는 도서관의 수많은 책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을 위한 범죄적인 에너지까지도 발산한다. Johann Georg Tinius(1764-1846)(Schulte 1893)는 가난한 양치기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특유의 천재적인 소질로 인해 교육을 많이 받았다. 4명의 자녀를 둔 목사는 1813년 그가 체포될 때까지 누구도 그의 장서광에 대해 눈치를 채지 못했고, 또 어디서 도서구입 비용을 마련했는지 몰랐다. 그는 그의 장서광적 취미를 위해 Leipzig에서 한 상인과 한 미망인을 살해하고 3,000Taler를 훔쳤다는 비난을 받았다. Tinius는 희생자들을 한줌의 코담배로 마비시키고 서기를 조정하는 도서관 망치로 내리쳤다. 그의 재판은 1823년까지 계속되어 12년의 형을 받았다. Tinius는 그의 범죄 행위를 끝까지 고백하지 않았고, 반면 1821년 17,000원에서 60,000에 이르렀던 그의 도서관의 피해에 대해서만 안타까워했다. 그가 이렇게 많은 도서를 수집하기까지 몇 명을 살해했는지는 끝까지 밝혀지

지 않았지만 적어도 2명 이상을 됐을 것이다.

이태리의 Tarragona에 소재한 Poblet 수도원의 사제(司祭) Don Vincente(Flaubert 1921)는 수도원이 약탈될 때 수많은 도서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는 이 책들로 바르셀로나에서 고서점을 운영하였다. 그는 한번도 이 고서들을 읽지는 않고 일생동안 수집광적으로 살았다. 그는 주로 비교적 값싼 책들만 팔았고, 특별히 재정적 위기에 처한 경우에만 고가의 도서를 처분했다. 그는 그가 처분한 고가의 책들 다시 되찾기 위해 어떠한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책을 되찾기 위해서는 살인이라는 방법까지도 동원했다. 1836년 그는 한 경매장에서 1482년의 희귀본인 유일본을 획득하는데 실패했다. 그 다음 주 그는 그가 취득하지 못했던 희귀본의 소유자와 그의 고객들 10명이 살해됐다. 수사관들이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희귀본을 찾아내어 그를 체포했다. 법정에서 그는 학문에서 대체할 수 없는 보물을 가지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는 이 희귀본의 또 다른 복본이 파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그는 거의 미쳐버렸다. 1836년 사형 집행장에서 그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희귀본이 유일본이 아니다, 나의 것이 유일본이 아니다”라고 외쳐댔다. 이렇듯 모든 비블리오마니아가 범죄까지 가지는 않는다. Anton-Marie-Henri Boulard는 그가 죽을 때까지 600,000-800,000권의 책을 입수해서 5개의 저택에 보관하였다. 또 메디치가의 사서였던 Antonio Magliabecchi(1633-1714)는 일생 동안 책만을 위해서 살았고, 책을 위해 그는 모든 재산을 소비했다(Massen 1940).

2. 2. 3 Bibliocleptomanie

도벽, 절도광인 크레토키니아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념이지만 주로 강박관념적으로 나타나는 병리학적인 도벽을 의미한다. 편집광(偏執狂)인 모노마니아(Monomania)와도 일맥 통하며,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에 집착하여 상식으로는 판단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정신병적 행위를 의미한다. 프로이드는 크레토키니아를 불만족스러운 성적 욕구에 대한 대리 만족으로 정의했다(Floru 1974). 흠친 대상들은 가치로 따지자면 그렇게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은 흔히 상징적인 의미로 밖에 취급되지 않는다. Bibliomanie는 도서가 중심에 있지만 Bibliocleptomanie는 흠치는 행위 자체가 중심에 있다. 즉 Bibliomanie는 흠치는 행위가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만, Bibliocleptomanie는 책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Bibliocleptomanie의 행동에 대한 설명은 흠친 물건을 통해 성적 만족에 이르는 데서부터 아동기에 사회에 대한 도전과 물질적인 복수 혹은 감정적 박탈감(꼭 필요한 것이나 오랜 동안 소망했던 것을 빼앗겼을 때)이다. 크레토키니아의 특수한 형태는 Fetishist(物神崇拜)에서도 연유한다. 페티시스트는 그가 숭배했던 사서가 만졌던 책들이나 또는 숭배했던 사서의 어렴풋한 향기가 남아 있는 책들을 도벽의 대상으로 한다.

1920년대 어떤 역사학자는 도서관에서 수많은 필사본을 훔쳤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었다. 그는 필사본을 한번 쳐다보면 필사본의 주술적인 힘이 성적 자극으로 바뀌어 본인도 흠치는 것을 주체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Willms 1978).

3. 직업군으로 본 책 도둑의 역사

3.1 공권력에 의한 책 약탈

책의 파괴와 약탈은 책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것이다. 전쟁에서 정복자들은 약탈을 통해 예술품이나 책을 승리자의 소유로 만든다. 이러한 약탈 행위가 승리자한테는 도둑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당연히 적대국의 물품을 단순히 압류 또는 징발하거나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인식해오고 있다. 이미 기원 전 6세기 그리스에는 파피루스 형태의 책이 출현하여 페리클레스 시대에는 철학 분야의 도서생산이 급증했다. 그 결과 아리스토텔레스 도서관처럼 수많은 개인 도서관의 설립이 잇따라 발행 부수가 많은 필사본을 생산하는 상인들이 나타났다. 기원 전 289년 프톨로마우스 2세(Ptolemy II)가 대규모 Museion에 도서관을 건립할 때 그는 다른 헬레니즘 통치자들처럼 그리스 문화를 보호하고, 그의 정책에서도 문학과 지식을 융화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러한 문학과 지식에 권력에 예측시킨 그의 정책을 위해 프톨로마우스 2세는 그 당시 출판된 그리스 인쇄물뿐만 아니라 문예작품의 초고나 그 당시 최고의 필사본들도 수집했다. 이러한 수집에는 포악한 방법이 동원됐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프톨로마우스 2세의 후계자 Euergetes는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정박한 모든 선박에 선적되어 있는 책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을 동원하여, 수집하여 복사본을 만들고, 원본을 돌려주지 않고 복사본을 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획득한 도서수집 업적을 후에 “선박펀드(shipfond)” 방법이라고 불릴 정도였

다(Confora 1961). 이러한 행위는 직접 도서관에서 책을 약탈한 행위는 아니지만 오늘날의 법규정에 의하면 권력을 동원한 불법 행위임에는 틀림없다.

로마는 그리스를 정복한 후 로마 군대들이 그리스 도서관의 장서들을 로마로 가져왔다. 로마의 장군이면서 학자이기도 에밀리우스 파울루스(Emilius Paulus)는 마케도니아의 왕궁 도서관을 약탈했다. 로마 병사들은 궁전서 값비싼 물품들을 약탈했지만 에밀리우스 장군은 도서관의 장서에만 관심을 가졌었다. 그의 장서는 로마의 첫 번째 개인 장서로 불린다. 또 술라(Cornelius Sulla) 장군은 테오(Toes)의 아펠리콘(Apellicon)의 유명한 장서를 로마로 강제로 끌고 왔다(Thompson 1968). 이러한 전리품들은 이를 필요로 하는 지식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에 기증하거나 아니면 정복자들의 개인도서관의 소장품이 되었다. 즉 로마의 개인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들은 그리스의 전리품으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달마티아를 정복하여 재산을 축적한 아시니우스 폴리오(A. Asinius Pollio)는 그의 재산을 도서관을 설립하는데 사용하였다. 그가 설립한 도서관은 그가 수집한 장서와 술라 장군의 장서를 포함하여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여러 도서관을 통합하여 아벤티누스 언덕위 자유의 사원 ‘아트리움 리베르타스(Atrium Libertas)’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 도서관이 BC 37년 로마의 첫 번째 공공도서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당시 로마의 고위층에게는 책이 하나의 고상한 권위의 상징물이 되었고, 또 애서거(Bibliophilie)가 된다는 것 자체가 부유한 로마인의 고상한 취미에 속했다. 특히 거대한 전원주택에 책을 소유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명예스러운 장식이었다. 이러한 환경에 따라 출판업자들이 성행했고, Cicero의 친구인 은행가 Atticus는 로마에서 첫 출판사의 주인이 되었다(Uhlig 1953).

중세에서 또 근대, 현대에서도 도서관은 약탈당하고, 압수되고 파괴됐다. 도서관의 황폐화에서 가장 최악의 사태는 유럽에서는 1524-1525년 농민전쟁과 1616-1648년의 30년 전쟁이었다. 이 때는 거의 전 국토가 폐허가 되면서 도서관도 이 폐허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그 결과 베네딕트파 Corvey수도원은 1632년 스웨덴의 군대가 5번이나 점령하고 약탈했다(Gartdthausen 1920).

바이킹족들도 앵글로색슨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장정에 들어 있는 금을 약탈하기 위해 수도사들의 잡화 필사본을 훔쳤다. 이 훔친 책 중의 한 권인 '코덱스 아우렐리우스(Codex Aurelius)'는 11세기에 도난당했으나 훔친 사람이 이 책을 팔아넘길 시장이 없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오기도 했다(망구엘 2000).

불란서혁명 후 불란서군대는 1794년 독일과의 전쟁에서 라인강에 도달하여 전쟁동안 구해 내지 못했던 선제후도서관 장서를 약탈하여 팔아버렸다. 불란서가 독일의 고가의 필사본들을 약탈하는데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불란서 병참관 Jean-Baptiste Maugerard의 활약이 컸다. 과거 카톨릭 베네딕트 파였던 그는 오랜 동안 Metz주교의 사서로도 활동하여 활판인쇄술의 대가이면서 서지분야에도 통달한 사람이었다. 그는 병참관이라 직함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고가의 책을 수집했다. 1802년 그는 불란서 과학과 문화부의 독일관리로 임명된 후 그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거리낌 없이 불란서의 독일

점령지역인 라인지방에서 수도원의 희귀본과 고가의 책들을 약탈하여 나폴레옹이 유럽의 연구센터라고 칭하는 불란서국립도서관에 넘겨줬다(Vollmer 1937). 이러한 책들은 1814~1815년 비엔나협정에 의하여 일부는 독일에 되돌려 주었다. 그 당시 라인지방에서 빼앗긴 책은 2,300권의 필사본과 적어도 10,000권의 Incunabula였다. 이 외에도 독일의 남부 지방에서도 나폴레옹의 군대는 고가의 책들을 약탈했다. 약탈된 책들은 히틀러의 비밀경찰 게스타포(Gestapo)와 로젠베르그의 문화재약탈단체(Rosenberg-Action)에 의해 다시 찾을 기회가 있었다.

유럽의 역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처럼 문화재의 압류, 약탈, 파괴 등이 조직적으로 행해진 적이 없다 특히 전쟁 후 러시아 군대의 손으로 넘어간 모든 문화재들은 동유럽으로 운송되었고, 운송된 문화재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또한 행방이 묘연한 문화재를 찾고 있지만, 만약 소재를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반환청구 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소급적용은 근거가 없는 한계로 문화재의 반환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도서관들은 패전국인 독일의 도서로 서고를 채운 도서관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중세 사본들은 대부분 독일의 도서관에서 가져온 것들이었다. 현대사에서 가장 조직적인 책의 약탈은 2차 세계대전 전부터 전쟁 동안 나치정부가 점령한 국가와 유럽 유태인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1940년부터 Keitel장군은 공문을 통해 점령국가의 국립도서관과 아카이브를 철저히 조사하여 독일에 필요한 고가의 자료들을 독일로 가져오도록 했다.

나치정부는 점령지역 문화재의 약탈을 위해 문화재약탈단체(ERR: Einsatzstab Reichsleiter Rosenberg)를 만들었고, 그 책임자에는 사령부 특별출동대장인 로젠베르그(Rosenberg)를 임명했다. 히틀러는 로젠베르그에게 문화재 약탈에 관한 한 전권을 위임했다. 문화재의 약탈은 분야별로 이루어져 ERR 산하에, 예를 들면 조형예술약탈단체(Sonderstab Bildende Kunst), 음악관련자료약탈단체(Sonderstab Musik) 등이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도 내정되었다. 이와 별도로 불란서의 문화재 약탈을 위해서는 별도의 단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또한 불란서 문화재의 약탈에서는 독일내의 단체들끼리 라이벌 양상까지 보이기도 했다(Vries 1998).

ERR는 새로 점령한 동유럽 지역을 파헤치고 다니면서 큰 도서관들을 파괴하고, 많은 예술작품과 책들을 노골적으로 훔쳤다. 점령지역의 도서관의 안전은 도서관의 약탈을 위한 방편이었으며, 문부성은 당시 베를린 프러시아국립도서관장 Hugo Kruess를 점령지역에서 약탈된 도서의 책임자로 임명하였다(Vries 1998). 1940년 7월 히틀러는 전쟁 이후에 설립된 나치대학의 도서관을 채우기 위해 ERR에게 책을 몰수해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20명 내지 25명으로 구성된 ERR 회원들은 특별한 제복을 입고 군대를 쫓아다니면서 375군데의 고문서 보관소와 402군데의 박물관과 531군데의 학교기관과 957군데의 도서관을 약탈했다. Rosenberg의 베를린 동도서관에는 백만권의 훔친 책들이 소장되어 있었다(베틀스 2004).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나치의 유대인 박해는 유대인의 박해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

대인 관련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약탈했다. 나치는 로젠베르그가 설립한 유대인연구소(Hohen Schule)의 주도아래 유대인들의 소장품과 도서를 압수해서 프랑크푸르트 시립도서관의 유대인 관련 문헌과 문화자료를 55만개 품목으로 증폭시켰다. 리투아니아 빌뉴스(Wilna)에서는 여러 마을과 300군데 유대교회당에서 가져온 10만 권의 책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작품 2만 권을 선정한 후 나머지는 폐지공장에 팔아 넘겼다(베틀스 2004). 1939년 12월부터 1940년 3월까지 폴란드에서 만도 100여 곳의 도서관을 약탈했고, 한 도시에서 만도 유대인 관련 문헌 60만 권 이상을 약탈했으며, 폴란드 전역에서는 모두 백만 권 이상의 책들이 없어 졌다. 나치는 유대인 문헌 이외에도 슬라브 문헌과 프리메이슨 문헌도 약탈의 목록에 포함시켰다. 우크라이나에서는 ERR 에 소속된 150여명의 전문가들이 5.100만권 이상의 책들을 약탈하거나 없애버렸고, 벨로루시에서는 200군데 상의 도서관이 약탈당했다. 벨로루시 국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소장 도서의 83%가 없어졌었고, 이중에 60만 권의 책을 다시 찾기는 했지만 없어진 책이 100만 권에 달했다(베틀스 2004).

ERR 간부들의 약탈은 서유럽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943년 독일군이 로마를 점령하자 ERR 전문가들은 로마의 유대교 회당에 있는 두 개의 큰 도서관을 샅샅이 뒤졌다. 당시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2천년 동안 살아온 역사를 기록한 진귀한 문헌들이 소장되어 있었다. ERR 전문가들은 도서관의 목록을 요구하여 철저히 조사했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1차 아우슈비츠 수송이 이루어지기

전 프랑크푸르트 로젠베르그의 유대인연구소로 떠날 두 대의 특별열차에는 도서관에서 약탈한 수천 권의 책들로 적재되었었다.

유대인 관련 자료를 약탈하는 데는 유대인 연구소 사서였던 Johannes Pohl(Kuehn-Ludewig 2002)의 역할이 매우 컸다. 카톨릭 신부였던 그는 이스라엘에 유학하여 유대인 전문가가 된 후 1935년 독일로 돌아와 프러시사 국립도서관 헤브라이어 주제전문사서로 활약했다. 교수가 되기 위해 유대인 문제에 관한 논문을 많이 발표한 것을 계기로 로젠베르그와 접촉하게 되었고, 그 후 유대인연구소 사서로 근무하면서 그의 헤브라이어와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로젠베르그가 갈망하는 세계에서 유대인에 관한 한 가장 큰 도서관 설립에 큰 역할을 했다. 이 도서관 장서 550,000권이 서유럽과 동유럽, 남부 유럽에서 가져왔는데 300,000권은 프랑크푸르트로 왔고 그 외는 베를린과 다른 도시로 분산됐다. 유대인연구소에는 150,000권이 풀여졌는데 27,848권만이 정리되었다(Kuehn-Ludewig 2002). 2002년에 발간된 Pohl에 관한 단행본에서는 나치에 공조하여 기회주의자와 공범자로 유럽 여러 나라의 유대인 관련 유대인의 저서를 철저히 약탈한 신부이면서도 사서였던 인물, 전쟁 후에도 버젓이 신부직으로 돌아간 그의 상서롭지 못한 과거 행적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에 대한 평가를 촉구하는 독일의 도서관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다가온다.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ERR산하에는 조형예술을 약탈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 음악자료를 전문으로 약탈하는 단체도 조직되었다. 히틀러의 예술품 사랑, 특히 불란서 미술작

품의 약탈은 우리에게 영화의 주제로도 잘 알려져 있다. 조형예술 약탈단체의 약탈 행위는 거의 노골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형예술의 약탈과 비교하면 음악관련 자료의 약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시각은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나치 정부는 ERR내에 음악관련자료약탈단체를 통해 동·서유럽에서 수많은 음악관련 자료인 악기, 악보, 음악관련 서적 등을 약탈했다. 이 음악자료약탈단체의 책임자로는 Rosenberg의 전우인 Herbert Gerig이 임명되었다. 특히 히틀러의 유대인 배척정책으로 인한 Gerig의 유대인 음악가와 작곡가들의 끈질긴 추적은 1945년까지 독일 음악 문화의 구조적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정도였다.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당의 전체주의적인 정신교육과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을 위한 관청 내의 음악 부서 감시기구 활동은 독일의 문화를 정화시키기 위한다는 명분아래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악명 높은 “유대인 음악가 백과사전(Lexika der juedischer Musiker.)이 출판되었다. 이러한 참고자료를 근거로 유대인 오케스트라, 지휘자, 음악회 사무실, 음반회사, 음악작품이 특정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지 등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수천 명의 유대인 음악, 작곡가는 그들의 음악 분야에서 추방당했고, 유명한 유대인 음악가와 작곡가의 집, 주인이 없거나 방치된 유대인 도서관, 유대인 정치조직들, 유대인 서점과 저택들, 시나고그, 상점 등에서 가치가 있는 물품들은 거의가 약탈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약탈물에는 유명한 악기, 음악자료 필사본, 악보, 음반, 도서, 음향기기, 가구들 까지도 포함되었다. 특히 ERR

의 전문가들은 파리 국립도서관 음악관의 목록, 오페라 도서관의 목록, 음악학교 도서관의 목록과 그 외 많은 불란서 도서관에서 독일 음악 자료를 조사했다. 이러한 조사에는 당시 독일의 프러시아국립도서관 음악부에 오랜 동안 근무했던 음악전문가인 Georg Schuenemann이 큰 역할을 했다. 유대 관련 자료전문가인 Georg Pohl처럼 Georg Schuenemann도 유대인 음악자료의 약탈에 큰 공헌을 했지만 전쟁 후 그의 사회주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큰 활약을 하지 못했다(Vries 1998)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20개국에 3만 4000점이 산재해 있다. 이 중 47%인 3만 4000점이 일본에 있지만 그 반환에 있어서는 어느 문화재처럼 더딘 협상이 있을 뿐이다(김미경 2005). 그러나 근래 불란서와의 도서 반환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1866년 병인양요를 통해 불란서가 약탈해간 서적 340권은 불란서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가 집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불란서가 고속전철 TGV 수주를 목적으로 도서반환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서부터였다. 그러나 당시 방한했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과의 상호교환 방식에 구두로 합의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외규장각 도서 중 한 권인 徽慶園 園所都監儀軌 만을 1993년에 한국에 반환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관에 수장되었다. 그 후로도 양국은 민간대표간에 난항을 거듭한 협상을 통해 2001년 불란서의 외규장각 御覽用圖書(임금이 보는 책)와 한국의 비어람용 복본을 상호대여하자는 등가교환(等價交換) 방식에 합의했지만 약탈당한 문화재를 상호 대여 형식으로 돌려 받는 것을 인정할 수 없

다는 우리나라 문화계의 반대로 합의를 완전히 백지화하였다. 유괴당한 아이를 되찾기 위해 내자식 하나를 내주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4년 국내 학계와 국민이 외규장각 도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약탈된 도서의 디지털 촬영 아이디어가 대통령 직속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기됐다. 국내에 없는 필사본 30권의 유일본에 대해 우선적으로 촬영한다는 방침은 불란서 측의 답변 유무와 상관없이 진본 반환 협상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학계나 민간인의 반대 여론이 높다(김상연 2005).

20세기는 책이 조직적으로 파괴되면서 또한 새로운 형태의 책이 개발된 시대이다. 20세기 초기에는 마이크로필름이 등장하여 책의 위기가 왔다고 호들갑을 떨었고, 말기에는 디지털 시대가 등장하여 전자책이 책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떠올랐다. 책의 파괴와 약탈이 20세기에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는 단언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최근의 사건이기 때문에 근거자료가 많아서이기도 하다. 티베트를 침략한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불교사원을 거리낌 없이 약탈했다. 그 당시 수십만 권의 책, 그 중에서는 구텐베르그 성경보다 수세기 전에 목판인쇄술을 사용하여 빨간색 실로 박음질 처리된 아름다운 책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문화혁명 당시 중국인들은 그들의 책들도 도처에서 파괴했다. 또 아프카니스탄의 탈레반 정권도 바미안에서 유명한 불상을 파괴하기 3년 전에 아프카니스탄 북부 하킴 나세르 호스로 발히 문화센터에 소장된 55,000권의 장서를 화염 속으로 사라지게 했다(베틀스 2004).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라크 전쟁으로 4대 문명의 발상지의 유

일한 문화재와 책들이 파괴되고 없어진 장면을 TV를 통해 생생하게 보았다

3. 2 사서로서의 책 도둑

책 도둑의 역사에서 사서가 단연 선두에 나타난 점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사서는 도서관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도서관 직원들에 의한 책 절도 행위는 직원에게 부여된 기회와 신뢰를 악용하여 일상 업무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선별하여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또 도서관 관리상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도서관의 규정을 직원 스스로 파기하는 것들이다. 도서관 자료의 도난 사건 중 매 3건 중 1건이 관내 직원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도 있고(Jackson 1991) 또 모든 도난당한 책의 25%는 전문 도둑보다는 내부인, 즉 학생, 교수, 사서, 직원, 수위 등등에 의해 행해진다고 하였다. 어떠한 시스템도 도서관내의 즉 직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도난 행위는 막을 수 없다고 한다(Van Nort 1994).

이미 Cicero는 그의 사서 Dionysius가 그의 귀중한 사본을 가지고 사라졌던 그리 유쾌하지 못한 경험을 해야 했었다(Rost 1936). 홍순영(1993)은 국내의 도서관 자료 도난사건은 문헌으로 알려진 사례가 없어서 외국의 사례를 나열하고 있다. Pierre de Carcari는 파리 국립도서관의 감시자로서 수많은 고가의 복본들을 훔쳤고, 보스턴 단과대학의 특수자료실의 책임자였던 Ralph Coffmann은 15, 16세기에 출판된 귀중본들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사례, 버지니아 국방연구소(Virginia Military Institut)의 도서관장이었던 Georg Davis가 그 도서관

에서 7,500권을 빼들린 사례, 오클라호마대학교 도서관장으로 재직하던 James Alsip가 당시 도서관에서 175권을 훔친 사례 등이다. 또 조지아대학교 도서관의 귀중본 책임자로 있던 Robert Willingham이 자기가 책임 맡고 있던 귀중본을 훔쳤는데 8권으로 된 귀중본은 한 세트가 무려 25만 불이나 하는 고가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귀중본들이었다. 재판관은 그에게 15년의 징역, 15년의 집행유예, 45,000달러의 벌금형을 언도하면서 “공공의 신뢰를 배반한 죄”로 매우 엄한 처벌을 내렸다. 이 외에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던 한 여직원은 5년에 걸쳐 180만 달러 상당의 귀중본을 훔쳤다. 그녀는 자료만을 훔친 것이 아니라 서가 목록의 기록까지 없애고 도서관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다. 빼들린 고가의 귀중본을 감정받기 위해 접촉한 전문 상인의 신고로 적발되었다(Inside 1991).

Philadelphia 소재의 Rosenbach Museum and Library 에서는 20년 간 재직한 관장 Clive Driver가 매우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1790년 John Adams가 John Trumbull에게 보낸 편지를 골동품 상인에게 팔아넘긴 사건을 후임 관장의 끈질긴 조사 결과 밝혀졌다. 소더비 경매상과의 공조 끝에 이 편지를 소유한 장본인은 Massachusetts의 전문 상인인 Paul Richards로 밝혀졌지만 결국 Paul Richards는 Clive Driver였었다. 관장인 Clive Driver는 이름까지 가명을 사용했고 또 도서관부를 고치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조사 결과 그는 중죄를 면치 못하였다. 5만 달러의 범칙금과 3년의 집행유예, 각 주 연합의 사료 운송 분야에서 2,0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해야 했다(Van Nort 1994).

사서들의 책 도절 사례는 무한정 나열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큰 책 도둑은 의심할 바 없이 Guglielmo Libri일 것이다. Guglielmo Bruto Icilio Timoleone Libri Carrucci della Sommaia는 1803년 플로렌스에서 오래된 프로렌스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나폴레옹 군대의 장교로 1816년 어음 위조로 형을 받았다. 그리하여 Libri는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예견된 Cleptomani인 도벽의 소유자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재능을 가져 17세에 법학박사 학위와 자연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세에는 이미 피사 대학의 수학과 교수에 임명되었으나 10년 후에 건강상의 이유로 교수직을 내놓았다(Staudacher 1952). 1830년 민족주의 결사단체인 카르보나리의 실패한 쿠데타로 인해 Toskana를 떠난 그는 파리로 거주지를 옮긴 직후 프랑스 시민이 되어 원래 매우 길었던 이름도 이때부터 리브리 백작이라는 짧은 명칭으로 줄었다. 프랑스 학계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던 그는 프랑스 학사원의 회원으로 선출되었고, 또 파리대학 과학과 교수가 되었다. 학자적 신임을 지켜 그는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망구엘 2000). 파리에서 그는 재빨리 정치와 학문 분야의 유명 인사들과 친분을 갖음으로서 새로운 경력을 쌓았다(Staudacher 1952). 리브리는 여러 학술지의 공동 집필자였고, 또 세계 최초의 저널인 Journal des Savant의 집필자였다. 그의 대표작인 '이태리 수학의 역사(Histoire des sciences mathematique en Italie)'는 그 당시 오스트리아의 지배 하에 있던 관계로 금서로 지정되었지만 이태리에서 그는 애국열사로 환영을 받았

다. 그는 그의 저서를 위해 사료 연구에 깊은 해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필사본 전문가가 되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학문만이 아니었다. 그의 책에 대한 열정 또한 대단해서 1840년에는 이미 놀랄 만큼의 많은 도서 수집품을 확보하고 있었고, 희귀한 인쇄본과 필사본을 거래하고 있었다. 리브리는 수학자에서 필사본 연구자로의 전환하여 희귀본을 사냥하는데 전력투구하게 되었다. 그는 파리 국립도서관의 고서과 사서직을 위해 두 차례나 서류를 제출하여 거절당했으나 1841년 드디어 불란서 대부분의 국립도서관 출입을 가능케한 불란서 종합목록(Catalogue general)위원회의 서기(書記)로 임명되었다(Lexikon 1953). 공식적인 신임장으로 무장하고 보물을 숨겨 나올 커다란 망토를 걸치고서 리브리는 프랑스 전역의 도서관에 수시로 드나드는 권한을 얻어냈다. 그는 불란서 전역에서 자료를 훔쳤지만 오로지 오르세에서만은 약탈 행위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 이유는 신문에서 그를 유명인사로 대하자 관장이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리브리에게 밤에도 도서관에서 일을 하도록 기꺼이 허용하면서 그를 돌봐줄 안내인 한 사람을 붙여주었기 때문이다.

그가 훔친 책의 규모는 그의 죽음 후 영국인 Leopold Delisle에 의해 밝혀졌는데, 책을 도난당한 도서관은 40년 동안 책의 분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불란서 혁명 후 수도원-, 귀족-, 왕족-, 국립도서관의 도서는 국유화되어 국가 종합목록을 만드는 수집 과정에서 도서는 헐값에 팔리기도 하고, 교과서와 교환되기도 하고, 시의 재정 사정으로 팔리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리브리는 도서관에서 고가의 도서를 빼

내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는 도서관의 허술한 장정 상태와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기도 하고, 지방에서 가져온 책들의 유래와 도서관 소장인을 변경하거나 지워버리기도 하고(Lexikon 1953) 또 그는 도서관의 장정을 아예 새로 바꾸어 버리기도 했다. 이 모든 방법들에 대해 Delisle는 불란서 국가 유산에 대한 정신적 절도에 대해 당연히 죄인의 낙인을 찍어야 한다(Staudacher 1952)고 했다.

1847년 리브리는 그의 소장품을 파리의 경매시장에 10만 프랑에 내놓은 것을 계기로 그에 대한 고발이 184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너무 터무니 없는 고발이라고 여겼던지 고발들은 묵살되었다. 마침내 그는 훔친 책의 일부를 파는 거래를 체계화하기 위해 상세한 목록까지 작성했다. 그에 대한 고발이 늘어만 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되자 검찰관이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런 조사는 당시 리브리의 친구이자 각료회의의 의장으로서 그의 결혼식에 증인까지 서 주었던 기조(Francois Pierre Guillamme Guizor 1787-1874)에 의해 무마되었다. 만약 1848년에 불란서 혁명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 문제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7월 왕정을 종식시키고 제 2공화정을 선언했던 혁명의 소용돌이 와중에 기조의 책상에서 유명한 정치가이자 역사학자였던 친구 리브리의 서류가 발견되고 말았다. 그에 대한 고소장 접수는 즉각 리브리에게 전해졌고, 리브리는 영국으로 달아났다.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리브리는 5천 프랑 가치의 책 18상자를 가지고 갔다. 그 당시 숙련 노동자의 일당은 4프랑밖에 지나지 않았다(망구엘 2000).

런던에서 리브리는 불란서 도서관에 관한

343쪽 짜리의 혹독한 비판으로 변명서를 작성하여 자신에 대한 의혹을 변호하였다. 그는 그가 훔친 도서, 또는 도서관 인장을 떼어낸 도서가 자신의 소유라는 증명을 도서 애호가라는 동기를 들어 제시하고, 독일, 불란서, 영국, 이태리, 벨기에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서와 감정서를 첨부하였다. 일단의 정치가들과 예술가, 작가들이 리브리를 옹호하기 위해 모였지만 별효과가 없었다.

리브리의 사례는 하나의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그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두 가지, 즉 도둑 또는 야비한 고물상이라는 의견과 애서가의 모험으로부터 나온 大騎士라는 의견으로(Staudacher 1953)나뉘었다. 그는 결국 확실한 증거로 형 집행을 받았지만 이태리에서는 그에 대한 동정론이 우세했고, 영국에서는 Deslisle를 통해서 분명한 판결에 거리를 두고 있었고, 또 불란서에서는 그의 명예회복에 대한 복권을 거절했다.

리브리가 애서가 인지 아니면 장서광, 도벽, 탐욕자 인지 또는 그의 고향이 나폴레옹 군대와의 전쟁으로 귀중한 예술품들이, 그 중에서도 수많은 도서들이 약탈당한 데에 대한 회복 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Herm 1988). 리브리 후 리브리를 모방하는 사례가 후세에 많았다.

가장 최근 우리나라 외규장각 도서 반환과 관련해서 올해 초에 재미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4년 불란서 국립도서관의 유일본 고문서인 수사본52(Manuscript 52)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3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 이 히브리어 고문서는 송아지 가죽에 모세 5경과 잠언서, 아가서, 전도서 등이 기술되어 있는 332쪽 분량의 책이다. 마지막 낙찰자는 이스라엘의 에루살렘

대학이었다. 이 대학 측은 고문서의 이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 소장처가 불란서국립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결과 예루살렘 대학은 불란서 정부에 이 사실을 알렸고, 범인은 불란서 국립도서관 히브리어 고문서 담당관이자 관장인 미셸 가렐로 밝혀졌다. 도난된 귀중본은 수사본52 뿐만이 아니라 고문헌 중 수사본 25권과 인쇄본 121권이였다. 미셸 가렐은 공교롭게도 2004년 불란서국립도서관 자체 안전과 국제협조 관련 세미나에서 1993년 미테랑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어람용도서를 반환한 행위는 '국가원수에 의한 절도행위'라고 반한 자체를 적극적으로 막았던 인물이다. 이러한 불란서 국립도서관장의 다중인격장애, 밤에는 문화재를 훔치고 암거래하는 범법자를 정부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한 불란서가 문화강국임을 자처하는 그들,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최적의 과학적 보존환경과 최고의 훈련을 거친 전문인력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이지만 윤리 의식이나 책임 의식이 결여된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궁금할 뿐이다(이보아 2005).

외국의 경우 도서관 직원의 절도 행위가 보고되지만 국내서는 이러한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조 말기 이전의 도서관 관원은 문사와 학자적 대우를 받으며, 그 직이 청직(淸職) 또는 선관(仙官)이라고 불리었고, 이는 가장 고귀하고 명예로운 직으로서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에 올랐다(이재철 1971). 이러한 인식에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 직원에 의한 도난 사고를 거론한다는 사실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직업 윤리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서 자신들을 위한 보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행스럽게

도 도난사건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시원한 해석을 내리기는 어렵다.

3.3 성직자로서의 책 도둑

성직자들의 책 도둑은 예로부터 아주 생소한 사건이 아니다. 교회에서 그들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의 행동은 뻔뻔스럽다. 교황 인노센트10세(Innozenz X, 1574-1655)는 Pamfilio 추기경으로서 불란서 도서관에서 책을 훔치는데 전혀 거리낌없었다. 불란서 수집가들은 Pamfilio추기경이 도서관에서 어떻게 책을 훔쳤는지를 알아차렸고, 그에게 훔친 책을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Pamfilio 추기경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그의 분노를 발산하면서 너무나 격렬하게 항의 하다가 그의 추기경 가운 속에 감추어진 책들이 바닥으로 떨어져버렸다(Thompson 1968).

Matthias Flacius Illyricus(1500-1575)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루터 교리 역사의 창시자였다. 그는 계몽주의 도둑가로 유명했다(Schuegraf, 1982). 그는 독일의 수도원과 교회 도서관을 여행하면서 교회사에 관한 사료를 수집했다. 그는 그의 일상적인 수도복 대신 카톨릭 수도승복을 사용했다. 그는 이 수도복(제복)안에 원하는 책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가져온 책들에서 그는 칼로 원하는 부분만을 잘라낼 수 있었다. 이렇게 수집한 책들로 그는 후에 유명한 "Catalogus testium veritatis, Centuriae Magdeburgicae und Missa latina"라는 목록을 완성시켰다. Flacius의 대규모 개인 도서관은 현재 독일 유명한 중세도서관인 Herzog-Augustus-Bibliothek이 되었다. Flacius가 변

장을 했다거나 또는 약탈 행각에 그 유명한 칼을 소지했었는지는 증명할 수 없었다. 그의 종교적인 적수인 Philipp Melanchton이 제기한 비난, 즉 Flacius는 대출한 도서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오늘날 증명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562년 Flacius가 독일 Regensburg의 Reichenbach 수도원에서 대출한 도서를 현재의 Herzog-Augustus-Bibliothek의 장서와 비교를 해봤으나 두 도서관의 소장 목록에는 그가 대출해간 도서를 한 권도 발견할 수 없었다(Olson 1981). 그러나 과거 책도둑이었다는 Flacius에 대해 지금은 다른 의견이 대두되었다. Regensburg 대학은 1975년 그의 400년째 기일에 즈음하여 신학과 슬라브 문학 분야의 공로를 인정하였다(Mattia Flacius Illyricus 1975).

18세기 모든 성직자로서의 불법행위를 대표한 사건은 추기경 Domenico Passionei(1682-1761)이다. 그는 바티칸 도서관 관장으로서 바티칸의 특권을 악용하여 수도원 도서관을 샅샅이 뒤져서 희귀본이나 고가의 필사본 이용할 수 있었고 가져올 수 있었다. 그의 개인 소장품만해도 60,000권에 이를 정도였다(Justi 1956). 그는 1721년 스위스 대수도원을 방문하여 그의 추기경 가운데소에 소세지를 채우듯이 책들을 거리낌없이 채워가지고 나왔다. 그는 수도원 도서관의 사서에게 그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부탁했다. 추기경은 고가의 도서를 밖에서 기다리는 공복에게 창문을 통해서 건네줬다. 그의 소장품은 사후에 Bibliotheca Angelica에서 소장하게 됐다(Thompson 1968).

19세기 의 불란서 대수도원장 Chavin de Malan은 18세기의 Passionei 추기경 못지않았

다. 파리와 올랑(Orleans)의 카톨릭 대주교의 후원 아래 Chacin de Malan은 노쇠한 Genevieve 도서관 관장인 M. Robert를 움직여 도서관의 열쇠를 넘겨받아서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저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대한 처사는 Chavin de Malan이 514권의 고가 도서를 훔치는데 일조했다. 훔친 책을 가지고 그는 룩셈부르크로 피신하였고 거기서 그는 대공(大公)의 도서관 사서가 되었다. 그의 수집품은 대부분 오늘날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Thompson 1968).

미국에서도 책 도난과 성직자와 관련해서는 언짢은 사례가 있다. Rhode Island주의 Narragansett Pier의 전직 성직자였던 Frederik A. Bates는 3,500달러 상당의 도서 1904권을 미국의 여러 도서관에서 훔쳤다(Books stolen 1904). Union Theological Seminary도서관 한 군데서만 1900년에 1,000권의 도서를 도난 당했다(Thompson 1968).

3. 4 학자와 작가로서의 책 도둑

학자들이 책을 훔치는 행위는 사서나 성직자가 책을 훔친 것보다는 그 순위에 있어서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지만 학자들이 책에서 그들이 필요한 부분만을 혹은 기사 전체를 찢어내는 파렴치한 행위는 다른 두 그룹에 비해서 훨씬 더 하다.

19세기는 학자들의 책 도둑 행위가 성행했던 시기였다. 1860년 라이프찌히 대학 신학 교수 Wilhelm Bruno Laidner는 이 대학 도서관에서 고가의 도서를 훔쳤다. 신학 분야에서 여러 권의 저서를 남긴 이 교수는 6년형을 받았다

(Klenz 1913). 또 이태리에서 Codex Utinensis의 분실에 대해 이태리 학자들은 라이프찌히 대학 법학과 교수 Gustav Haenel을 의심했다. 그러나 독일 쪽에서는 거의 국가적인 분노의 발작으로 반응하는 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했었다(Helssig 1912).

세인의 주목을 끌었던 큰 책 도절 사건은 1895년 이태리에서 발생한 Rapsiaridi 사건이다. 교수라고 자칭한 그는 고가의 미니어처(手寫本 彩飾畫)를 판매할 목적으로 이태리 국가를 상대로 제안했다. 해당 공무원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이 공무원은 제안한 미니어처를 바티칸 도서관에서 봤던 것을 기억하였다. 그때부터 Rapsiaridi는 계속 감시의 대상이 되어 결국 체포되었다. 그는 바티칸 도서관에서 41장의 미니어처를 手寫本에서 잘라 내어 가지고 나왔다(Diebstahl 1895). 이 사건 이후 바티칸 도서관은 수주일 동안 도서관을 개관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책임자인 바티칸 도서관 사서 Monsignore Isidora Carini는 교황의 심한 노여움을 사서 몇 주일 후에 사망하였는데, 사인은 자살이었다(Thompson 1968).

중동지방의 도서관에서는 이 지방을 탐사 여행하는 서방 학자들에 의해 수많은 도서들이 분실됐다. 러시아 교회의 주교 Porfyru Urpensky는 중동지방에 정착해 살고 있는 수도사들의 신임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고가 필사본을 가져와 Sankt Petersburg 공공도서관에 팔아 넘겼다(Gardthausen 1920). 또 유명한 독일 에집트학 전문학자 Heinrich Karl Brugsch는 시나이(Sinai) 지방의 수많은 필사본을 1866년 베를린 왕립도서관에 팔았다(Thompson 1968). 불란서 정부 심의관 Minoid Mynas도 중동지방

에서 여러 권의 고대 필사본을 가져왔다. 그 중에서 유명한 고가의 Babruis 우화와 Philostratus 논문을 영국대영박물관에 팔았다.

1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자는 Sankt Petersburg의 공공도서관과 관련해 세인의 관심을 끌 판결을 받아 냈다. 법정에서 피고는 담당 사서의 나태함과 직무유기를 들어 자신을 변호했다. 자신이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들은 도서관 사서보다 자신이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Thompson 1968).

학자, 화가, 저자, 역사가, 완벽한 영국 신사인 이 수식어는 1980년대 책 도둑인 Charles Merrill Mount를 묘사한 표현들이다(Goldberg 1993). 그는 5개 이상의 가명을 사용하여 훔친 자료를 은행의 보관함에 숨겼다. 그의 범죄 장소는 대부분이 국립문서관과 미국 의회도서관(LC)이었다. 그는 장물소지, 우편물 사기, 규정위반 물건의 소유, 불법적 소화기 소지범으로 기소되었다. 그의 형량을 모두 합하면 235년 징역에다 500,000불의 벌금형도 추가되었다. 그는 중고할인매장에서 구입한 고가의 옷을 입고, 유럽에서 몇 년간 살았던 관계로 Brooklyn 억양과 사교 영어를 잘 구사했다. 그는 성공한 초상화 화가로서 모네의 자서전을 출판 할 정도였고, 심지어 “Comtemporary Authors and who,s who in American Art”에 등재되고, 이외에도 Guggenheim 박물관의 연구원 신분이었다. 그러한 신분의 그는 그의 모든 연구 자료를 LC에 기증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증은 LC가 그에게 도서를 훔칠 기회를 제공한 격이 되었다. 그는 LC에서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실을 제공받았고, 이를 계기로 그는

LC 직원들이 그들 소장 자료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변론에서 그의 모든 행위가 '히스테리'였다고 했다.

3. 5 일반인에 의한 책 절도

일반인에 의한 책 도절 사례는 무한정 나열할 수 있을 정도이다. 과거에 책 도절은 물질적 이유보다도 지적인 욕망에 의해 행해졌다. 책을 가져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도절은 책에서 하나의 기사를 전부 도려내거나 또는 부록이나 지도 등을 찢어냄으로써 해당 책을 사용하는데 방해할 하고, 또 도서관에는 다시 자료를 되찾을 수 없는 피해를 준다.

John Bagford(1650~1716)는 그의 지도책 Atlas Typhographicus를 편집하기 위해서 백여권의 책에서 표제지 만을 뜯어냈다(Thompson 1978). 이 지도책은 발간되지 못했고, 훔친 표제지는 현재 대영박물관이 216권으로 제본하여 소장하고 있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도서의 부분을 찢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LC에서는 1992년 봄 극단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었다. LC에서는 서고를 폐쇄하고 일반 이용자에게 브라우징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다. 이 보다 약간 완화된 방법으로 그들은 전자감시 시스템을 도입했고, 또 자료의 이용 전과 이용 후의 무게를 달기까지도 했다(Rude and Hauptman 1993).

미국에서는 1920년대 도서 도난이 홍수처럼 자주 발생했다. 수많은 도서관에서는 몇 천 권의 고가 Americana는 책 도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획품으로 등장했었다. 세계 경제공황이었던 1929년과 1941년 사이 미국에서는 도

서관에서 책이 도난 사건이 급격히 상승했다. LC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LC는 1931년 Harold B. Clark을 체포했다. 그는 의회도서관 장서인을 책에서 도려냈다. 그가 훔친 책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는 책 도둑들이 하나의 거대한 고리로 연결되어 책 도절이 조직적으로 행해졌다고 고백했다(Thompson 1968).

미국 국가자산보호법(National Stolen Property Act)은 Kwiatowski형제가 저지른 절도 행위를 밝혀내는 근거가 되었다. 이 형제는 Joseph Biernat와 Donald Lynch와 함께 1940년 Chapin 도서관에서 고가의 Folianto(2절판 대형서적)을 훔쳤다(Thompson 1968). FBI공무원들이 대형 도난사건에 투입하는 것을 허용한 이 법을 통해 범인들이 다른 연방 주로 도주했지만 체포될 수 있었다. 그 결과 도난된 책이 아무리 많아도 분실도서목록을 작성할 수 있었다. 책 도난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발생했으나 동시에 서점에서도 유행처럼 행해졌다. 현대식 상품진열 방식을 통해 고객이 Self Service로 상품을 직접 고르게 하는 시스템으로 개조되면서 도서관에도 개가제 시스템과 특별 전시가 일반화되었다. 개가제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구매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이용자를 절도로 유인하는 방편이 되기도 했다.

부모의 지원 하에 집배용 트럭을 타고 방랑하면서 20군데의 도서관에서 5년 동안 도서, 필사본, 예술품을 훔친 William March Witherell이 San Gabriel에서 체포되었다. Greg Williams란 가명을 사용해가면서 그가 집으로 보낸 우편물 상자에는 200,000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료들로 채워 있었지만 부모는 그 상자들조차

열어보지 않았다. 그가 펜실베이니아의 Van Pelt 도서관에서 훔친 책은 한 권에 50,000불 짜리도 있었다(Goldberg 1993).

1964년 Robert Bradford Murphy(본명 Samuel George Matz)와 그의 부인 Elisabeth는 Detroit에서 FBI지직원에 의해 검거됐고, 정부재산법과 각 연방주간의 장물운송법으로 고발됐다(Goldberg 1993). 약 500,000불 가치의 국립문서관 자료가 6개의 여행용 가방에서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링컨, 아이젠하워, 케네디 등의 서한이 포함되어 있었다. 1962년 Murphy는 역사연구자 신분으로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방문 때마다 그의 부인을 동행시켜 서류상의 검사를 가며 통과할 수 있었다. 이 부부는 훔친 자료를 미국 전역의 사료 수집가에게 팔았다. 이 부부의 도절 행위를 FBI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문서관은 어느 언론에도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고, 또한 다른 문서관이나 고서 상인들게도 알리지 않았다.

자료의 분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해당 자료가 파괴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부부는 법정 모독과 증거물을 물어뜯는 행위 때문에 10년의 감옥형을 선고받았다. Murphy 부부는 분실된 자료를 찾는데 협조를 하면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는 법원의 제의를 거절하여 Murphy는 감옥에서 모범수로서 4년형을 마쳤고, 부인은 10년형을 꼬박 채웠다.

아마도 전례가 없는 가장 대규모 Bibliocleptomani는 미국에서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켜 전 미국 도서관을 들쭉서놓았던 Stephen Carrie Blumberg일 것이다. 1990년 그가 체포됐을 때 Iowa주 Ottuma 그의 집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분야별로 분류된 희귀본, 도서, 편지, 필사

본 등 11,000종으로 채워져 있었다. Blumberg는 미국 45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캐나다 2개 주의 268개의 도서관과 여러 박물관에서 2000만 달러 이상 가치로 환산 할 수 있는 20,000이상의 컬렉션, 10,000건의 필사본, 고가의 스테인글래스 창문과 악기, 50,000건의 안티 황동 문손잡이(Goldberg 1993) 이외에 희귀본 2만 권 이상을 아마도 유럽에서도 훔쳤다. “아마”라고 말한 것은 이 책들의 소유자를 밝혀 내는게 워낙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원자 40명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컴퓨터 도서관 센터에서 5주 동안 작업했는데도 책의 출처를 찾지 못한 책이 많다(카사노바 2005).

그는 대규모 두 대학도서관에서 여러 개의 훔친 책 상자를 가지고 도서 하적대로부터 유유히 운전하고 떠나기도 하고, 또 다른 도서관에서는 안전하게 보관된 개인 컬렉션이 있는 엘리베이터 창을 사다리로 올라가서 책을 훔치기도 했다. 또 열쇠를 훔쳐서 사서의 방에 들어가서 고서본 서고의 열쇠를 복사한 후 제자리에 갖다놓고 맘대로 책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는 한번에 많은 책을 가져올 때는 엘리베이터 작동법을 알아 자유자재로 Pick-up-truck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고 책을 박스에 넣어서 항구에 보내고 다시 되돌아 와서 다른 박스를 가져오곤 했다. 책들이 너무 많아서 Blumberg는 그를 도와줄 젊은이들의 목록까지도 만들었다(Basbanes 1995).

그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Riverside에서 마침내 체포될 때 그는 캠퍼스 경찰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가짜 문학 단체의 이름이 새겨진 고무도장을 삼켜버리기도 했다. 그가 체포될 당시 그의 가방에 있는 물건들은 다음과

같다(Goldberg 1993): - 미시간 대학의 Clement Library의 경고시스템의 배선도면, - Phoenix, Arizona, 정부 기관의 지도, - West Texas State Library의 도서관 평면도, - 미국 전체를 통 털어 다른 컬렉션에 대한 기사들, - University of California at Riverside의 심각한 경찰 인력 부족에 관한 기사, 또 그가 도서관 입장을 지우는데 사용한 방법을 나열해 보면 (Vitale 1993): - 그는 가짜 도서관 인장을 사용했고, - 레이블에 구멍을 뚫어서 청구기호를 없애거나, 고무를 발라 청구기호에 가짜 청구기호를 새로 만들고, - 그는 장서표(ex libris), 북자켓, 반납 기간표를 뜯어내고 가짜 증명서를 만들거나, 도서관 소장인을 덮어씌우기 위해 장서표 북자켓 반납기간표 등을 책에 풀로 붙였고, - 그는 책등과 책 모서리에 있는 도서관명을 사포(sand paper)로 닦아 내고 ex libris를 떼어 내고, - 그는 책에 있는 도서관 명을 도려내거나 검게 칠해버리고, - 그는 도서관 간부들의 회원과 절친하려고 유도하였고, 그로 인해 그들의 감시를 약화시키고, - 그는 변장의 마술사로서 길거리의 형클어진 머리의 거지 모양에서부터 대학 교수나 고서점 상인의 행세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고, - 그는 손가락 끝과 발끝만을 사용해서도 도서관 벽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다.

Blumberg는 정신이상, 망상적인 공포증에 시달려 도서를 공공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는 변론 등으로 7일 동안의 재판 결과 5년 이상의 직영형을 받고 200,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야 했다. 그도 역시 책을 훔치는데 사용했던 여러 가지 정보를 경찰에 알려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을 거절하였다(Goldberg

1993).

전문적인 책 도둑들은 국제적으로 활약하기도 한다. 멕시코의 한 전문적인 책 도둑은 유명 도서관의 명의로 가공의 국제상호대차 신청서를 발급한 후 미국의 여러 도서관으로부터 수천 권의 책을 대출받고 반환하지 않았다가 드디어 적발되었다(Mexican 1979). 한 에디오 파아인은 British Library 등 영국의 여러 도서관에서 '성스러운 책'을 '해방'시키기 위해 훔쳤다. 그는 훔친 책을 그의 조국으로 반환하기 위해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아마도 이 성스러운 책들은 영국인에 의해 약탈된 도서일 가능성이 높다. 또 1983년 미국의 여러 도서관에서 훔친 30상자의 책이 이란으로 반출되기 바로 직전에 미국의 한 세관원에 의해서 적발되었다. 이 사건은 아메리칸 대학에 적을 둔 이란 학생의 소행으로 밝혀졌다(ALA 1984-1987).

4. 결 론

책 도둑은 책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로 불렸던 고대의 도서관에서부터 21세기 디지털 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책의 분실은 규모와 방법은 달리할지라도 계속될 것이다. 쇠사슬에 책을 묶어 책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에 따라 사서들을 평안하게 해줬던 중세시대에서 지금은 전자 장비로 도서관의 책 도난을 방지하는 시대에까지 왔다.

책을 훔치는 행위는 아름다운 범죄로 여기고, 훔친 책을 팔지 않는 한 범죄로 여기지 않은 관습이 동서를 막론하고 내려왔다. 책을 훔치는 것은 책을 너무 좋아하는 데서부터 좋아하는 정

도를 지나쳐서 병적인 또는 광적인, 편집증적인 증세에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애서가, 장서광, Bibliocleptomanie의 개념을 살펴해보았다.

예로부터 책은 책에 접근이 가능한 성직자, 학자, 사서들에 의해 유출되었고, 전쟁을 통해 공권력을 동원한 문화재의 약탈품목에는 책도 당연히 포함되었다. 책을 좋아했던 프톨로마우스의 선박펀드(shipfund)를 통한 감쪽한 도서 수집 방법은 직접적인 도난은 아니더라도 분명 공권력을 동원한 불법행위다. 로마시대 도서관은 그리스로부터 약탈한 도서로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마의 장군 에밀리우스 파울루스는 마케도니아에서 다른 귀중품보다도 오직 책에만 관심을 가졌었고, 술라 장군 역시 테오의 아펠리콘의 유명한 장서를 강제로 로마에 가져왔다. 나폴레옹 시대 불란서 군대는 점령한 독일지역, 특히 라인 지방의 수도원 도서관을 약탈하여 고가품, 희귀도서, 필사본 등을 그 당시 나폴레옹이 세계의 지식의 보고라고 불렀던 불란서국립도서관으로 가져왔다. 공권력을 동원한 조직적인 책약탈의 유명한 사례는 세계사에서조차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나치시대에 발생했다. 1939년 전부터 나치가 점령한 국가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국가 차원의 도서 약탈이 감행되었다. 이를 위해 나치 정부는 문화재약탈단체(ERR)를 설립하여 로젠베르크를 책임자로 하여 조직적인 책 약탈을 시작했다. 이러한 약탈행위는 ERR 회원들이 거의 전 유럽을 헤집고 다니면서 헤아릴 수 없는 양의 책을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로 가져왔다. 특히 유대인 관련서적은 히브리어 전문가를 고용하여 철저하게 수집하여 유대인연구소의 장

서로 만들었다. 또 나치정부는 유대인 음악관련자료를 각 도서관들의 목록을 통하여 매우 꼼꼼하게 수색하였다. 이러한 철저한 수색을 위하여 유대인음악사전이 만들어질 정도였다.

중세에는 성직자들이 유일하게 수도원 도서관을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책 도둑의 주류를 이루었다. 성직자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교황 인노센트 10세가 추기경이었던 시절 추기경의 여유스러운 추기경복은 책을 도서관에서 숨겨나오기에 매우 적절한 수단이 되었다. 또 바티칸 도서관의 관장이라는 특권을 이용한 추기경 Domenico Passionei도 빼놓을 수 없는 사례이다. 중세에는 성직자 이외에도 귀족, 학자 그룹이 책을 훔친 사례는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특히 사서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책을 다루는 관리자로서 언제나 책을 접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직업상 부여된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빈번하였다. 특히 리브리는 책 도난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사례가 되었다. 리브리의 책 도절행위는 한 국가가 아니라 유럽을 무대로 다양하게 펼쳐졌다. 이태리 출신이었던 리브리는 불란서로 망명 오자마자 불란서의 유명인사의 대열에 끼어 불란서 학사원의 회원, 세계 최초의 학술지 Journal des savant의 집필자가 되고, 문화계, 학술계, 정치계 등과도 다양한 인맥을 가지게 된다. 그의 고국 이태리에서는 명저 Histoire des sciences mathematique를 집필하여 이태리의 애국열사의 대우를 받았다. 이러한 다양한 능력은 그가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사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후부터 고서의 가치를 알게 되어 고서가로 변신을 꾀한다. 그

결과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불란서 국립 도서관 고문서 사서로 임명되면서 고가의 희귀 도서에 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책을 훔칠 수 있는 공식적으로 부여된 권한으로 그는 불란서혁명 말기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자유자재로 책을 수집할 수 있었다. 그가 책을 사유재산으로 만드는 방법은 도서의 장정을 바꾸어버리거나, 소장인을 떼어버리는 등 다양했다.

20세기 미국에서 일반인 Blumberg의 사례는 그 규모와 방법 면에서 세상을 놀라게 했고 또 많은 도서관들이 그들 책의 분실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놀랐다. Blumberg는 미국 45개 주와 캐나다 2개 도의 268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도서를 훔쳐서 그의 집을 천장에서 바닥까지 채웠다. 그는 아마도 유럽에서도 책을 훔쳤을 거라는 심증이

있다. 그의 훔친 책의 출처를 알아내는데 40명의 인력과 5주 동안 온라인목록을 탐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의 출처를 알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의 도절 방법은 도서관 사서들을 웃음거리로 만들 정도로 대담하고 태연하고 악랄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도서관에서 컴퓨터가 적극 활용되기 이전의 사례이다. 전자도서관 또는 디지털 도서관 시대에서는 책 도둑은 과거 책을 단순히 불법으로 유출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넘어서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정보를 다루는 모든 시설들에 접근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고, 원격으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불법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도서관을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 도서관들은 책이 분실되는 단순한 도절에서부터 이러한 잠재적 위험과 포괄적 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김미경. 2005. "해외반출 문화재 20개국 7만4000여점 『서울신문』, [2005. 10. 11].

김상연. 2005. 외규장각도서 진본30권 佛에 디지털 촬영 요청. 『서울신문』, [2005. 7. 6.] 『문헌정보학용어사전』, 1996. 사공 철 등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망구엘, 알베르토. 2000. 『독서의 역사』. 정명진 옮김. 서울: 세종서적.

베틀스, 메튜. 2004. 『도서관, 그 소란스러운 역사』. 강미경 옮김. 서울: 넥서스Books.

이광주. 2001. 『아름다운 지상의 책 한 권』. 서울:

한길 아트.

안소영. 2005. 『책만 보는 바보』. 파주: 보림출판사.

이보아. 2005. 佛도서관장의 다중인격장애. 『서울신문』, [2005. 2. 24.]

이재철. 1971. 이조문헌직의 직능과 사명. 『도협월보』, 12(10): 13-14.

정민. 2005. 좋아하는 것에 목숨을 건다: 내책, 내 책. 불난집에 뛰어든다. 『조선일보』, [2005. 7. 23.] .

해밀턴 존 맥스웰. 2005. 『카사노바는 책을 더 사랑

- 했다』. 송영조 옮김. 서울: 열린책들.
- 홍순영. 1993. 『대학도서관의 자료보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Adam, Konrad. 1979. "Beim Buecherraub sind Juristen und Theologen an der Spitze." *Koelnische Rundschau*.
- ALA Yearbook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1984-87 Chicago: ALA,
- Basbanes, Nicholas A. 1995. *A gentle madness: bibliophiles, bibliomanes and the eternal passion for books*. New York: Henry Holt.
- Blades, William. 2005. 『책의 敵』. 이종훈 옮김. 서울: 서해문집.
- Bogeng, G. A. 1931. *Einfuehrung in die Bibliophilie*. Leipzig: Hieerseemann. 재인용: Dahm, Th.1990. *Buchdiebstahl aus Bibliotheke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Koeln: Fachhochschule fuer Bibliothekswesen-und Dokumentationswesen.
- "Books stolen from the public libraries" 1904. *Library Journal*. Vol.29. p.76-77. 재인용: Dahm.
- Canfora, Luciano, 1988. *Die verschwundene Bibliothek*. Berlin, Rotbuch-Verl.
- Diebstahl im Vatikan. 1985. *ZfB* Jg.12. 136-137. 재인용: Dahm.
- Flacius. 1961. *Allgemeines Gelehrten-Lexikon*. Hrsg. von Christian G. Joecher. Zweyter Teil. Hildesheim,: Olms.
- Flaubert, G. 1921. *Der Buechernarr*. Hannover. Paul Steegemann. 재인용: Dahm.
- Floru, Lucian. 1974. "Der Begriff des Pathologischen Stehlens." *Monatsschrift fuer Kriminologie und Strafrechtsreform*, 57(2): 72-88.
- Gardthausen, V. 1920. *Handbuch der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skunde*. Bd.1. Leipzig, Quelle & Meyer. 재인용: Dahm.
- Goldberg, Martin. 1993. "The neverending saga of library theft." *Library & Archival Security*, 12(1): 87-100.
- Harris, Michael H.1983. 『西洋圖書館史』. 全明淑, 鄭然卿 譯. (韓國學術振興財團 翻譯叢書, 74) 서울: 지문사.
- Helssig, R. 1912. "Der Erwerb des Codex Utinensis und eienr anderen Julianhandschrift durch Guistav Haenel" *ZfB*, Jg.29. p.97-116. 재인용: Dahm.
- Herm, G. 1988. Vor 140 Jahren Flucht des Italieners Carucci Libri wegen fortgesetzten Buecherdiebstahls. Manuskript zu der Hoefunksendung "Zeit Zeichen" von WDR 2 am 7.8.1988 von 9.05 bis 9.20. Koeln.
- "Inside Thief pleads no contest [to stealing rare books and documents from the Univ. of Pennsylvania]," 1991. *American Libraries*, 22(Jan): 20.
- Jackson, M. 1991. "Library security: facts

- and figures. Presented at the National Conference on Library Security, March 1991." *Library Association Record*, 93(June): 380-386.
- Klenz, H. 1913. "Buechernarren und gelehrte Buecherdieb" *Zeitschrift fuer Buecherfreunde*. N.F. 5. p.49-54. 재인용: Dahm.
- Kolasa, Ingo, 1988. *Zum Begriff Bibliomanie*. Berlin. Kuehnen.
- Kuehn-Dudewig, Maria. 2000. *Johannes Pohl (1905-1960): Judaist und bibliothekar im Dienste Rosenbergs, eine biographisches Dokumentation*. Hannover: Laurentius Verl.
- Lexikon des Buchwesens*. 1953. Bd. 2. Stuttgart: Hirschmann.
- Massen, C.v. 1940. "Vom grossten Bibliomanen." *Philobiblon*, 12: 139-141. 재인용: Dahm.
- Matthias Flacius Illyricus: 1575-1975*. 1975. Regensburg, Kall-Muenz: Lassleben. (Schriften des Regensburger Osteuropainstituts. 2).
- Mexican ILI Book Theft, "Libraries can recoup losse." 1981. *Library Journal*. 104(15): 2171.
- Olson, O. K. 1981. "Der Buecherdieb Flacius: Geschichte eines Rufmordes." *Wolfenbuetteler Beitrage*, 4: 111-147.
- Roberts, Matt. 1968. "Guards, turnstiles, electronic devices and the illusion of securit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29(4): 259-275.
- Rost, Hans. 1936. "Der Buecherfluch." *Sankt Wiborade*, 3: 87-92. 재인용: Dahm.
- Rude, Renee and Robert Hauptman. 1993. "Theft, dissimulation and trepass: some observation on security." *Library & Archival Security*, 12(1): p.17-25.
- Schuegraf, J.R. 1982. *Kurze Abhandlung ueber die Frage: warum wurden ehemals in Bibliotheken die Buecher an eiserne Ketten gelegt*. Bremen, FaksimileVerl.
- Schulte, E. 1893. "Ein Verbrechen aus Buecherwut" *Die Gartenlaube*, 3: 77-84 재인용: Dahm.
- Staudacher, W. 1952. "Guglielmo Libri: Die Geschichte eines Bibliotheksdiebes." *Libri*, 2. p.55-87.
- Thompson, L. S. 1968. *Bibliologia comica: or humorous aspects of the caparisoning and conservation*. Hamden: Archon Books.
- Thompson, 1978. L.S.: "Multilatis mutilandis" *Library security newsletter*, 2(2): 15-16.
- Uhlig, F.1953. *Geschichte des Buches und des Buchhandels*. Stuttgart,: Poeschel.
- Van Nort, Sydney C. 1994. "Archival and library theft: the problem, that will not go away" *Library & Archival Security*, Vol. 12(2): 25-47.
- Vitale, Cammie. 1993. "The Blumberg case and its implications for library security

- at the Central University Libraries,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ibrary & Archival Security*, Vol. 12(1): 79-85.
- Vollmer, B. 1937. "Die Einfuehrung niederrheinischen Archiv-, Bibliotheks- und Kunstguts durch den franzoesischen Kommissar Maugerard" *Annalen des Historischen Verein fuer den Niederrhein*. H.131. p.120-132. 재인용: Dahm.
- Vries, Wilhelm de. 1998. *Sonderstab Musik: organisierte Pluenderungen in Westeuropa 1940-45*. Koeln: Dittrich.
- Willms, J. 1978. *Buecherfreunde, Buech-ernarren*. Wiesbaden. Harrassowitz.